# 춤 승무로 法 나누는 공양의 무대

## '2021 정해림 찰나의 자유' 공연

**11월 13일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살풀이춤과 승무(이매방 류) 완무 펼쳐**
**법우들과의 약속 지키는 춤공양의 무대**
**이례적 완무 연습과정 정진의 시간으로**
**동래한량춤 · 산조춤 · 설장구놀음 공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승무의 완무를 볼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이매방 류)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매방 류) 전수자인 정해림은 11월 13일 오후 3시 부산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봉래홀에서 '2021 정해림 찰나의 자유'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정해림은 승무와 살풀이춤 독무를 선보이는데 승무를 완무한다. 판소리 '완창'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승무의 완무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해림에게 있어서도 이번 승무 완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25분이 소요되는 승무 완무는 흔히 볼 수 없는 공연으로, 정해림 씨는 이번 완무를 준비하는 과정이 곧 정진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춤을 추고 있는 주인공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며 힘겨움을 춤과 수행으로 완성했다. 결국 관객들이 만나게 되는 정해림의 25분 동안의 승무는 25분이 아니라 250분, 아니 그 이상의 '정해림'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승무라는 이름의 춤은 '승무'라는 이름을 빌어 함께 나누는 법(法)인 것이다.

"부처님법으로 살아가면서 수행의 방편으로 전통춤을 추고 있는데, 저에겐 춤이면서 수행의 방편인 그 춤을 언젠가는 꼭 법우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인 정해림은 정기법회 때 각자의 신행담을 발표하는 '봄 이야기' 시간에 자신의 신행담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언젠가 법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춤공양을 올리겠다는 발원과 약속을 했다. 발원과 약속이 간절했을까. 정 씨는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됐고 '공연예술' 개인자격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자신이 마음을 밝히고 춤을 출 수 있도록 이끌고 응원해준 스승과 법우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공양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저에게 연습이란 머물러 고정됨이 없게 하는 아만, 아상을 내려놓게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몸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은 몸을 다스리니 찰나를 경험케 하고 찰나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움과 조우합니다. 좀 더 자유로워짐으로써 나 자신과 남에게 이로워진다고 여기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해림 전수자의 승무와 살풀이 독무 외에도 조도근의 동래한량춤(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김현임 · 지영숙 · 강미선의 산조춤(김진홍 류), 추임새국악예술단의 판굿과 여성연희그룹 풀빛의 설장구놀음이 이어진다.

승무는 1964년 중요문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다. 불교적 정서를 몸짓으로 풀어내는 독무인 승무는 한국무용의 정수인 정중동(靜中動)과 동중정(動中靜)이 잘 표현되어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원(舞員)의 복식은 대개 날렵하게 걷어올린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와 흰 장삼을 걸치고, 머리에는 흰 고깔을,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수했으며, 양손에는 북채를 든다. 북을 향하여 관객을 등진다든지, 머리에 고깔을 써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 등은 승무만이 가진 멋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속예술 대부분이 그 연원과 유래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듯, 승무 또한 연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 연원과 유래의 여러 설이 분분하다. 전해오는 여러 설 중에는 조선 중엽 이후 승려 서산에 의해 포교의 한 방법으로 승무를 승려의 필수 일과로 중시한 뒤 더욱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그 뒤 운수승들이 승무를 탁발 수단으로 이용해 종교적 의의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금지된 이후 민간으로 내려와 민속무용으로 변모하게 됐다는 설이 있다. 승무의 아름다움은 정면을 등지고 양팔을 서서히 무겁게 올릴 때 생기는 유연한 능선과 긴 장삼을 공간으로 뿌리는 춤사위와 하늘을 향해 길게 솟구치는 장삼자락, 비스듬히 내딛고 미끄러지듯이 내딛다가 날아갈 듯한 보법이다.

자진모리와 당악 장단에 맞추어 시작하는 북의 연타는 주술적인 힘을 발하여 관객을 춤 속으로 이끈다. 북소리가 멈추면 다시 긴 장삼이 허공에 뿌려지고 연풍대가 있은 후 어깨춤과 사뿐한 걸음에 합장으로 춤을 맺는다.

승무는 지역마다 조금씩 특징을 달리하며 전승되어 왔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00년 이후 한성준의 노력으로 예술화한 경기 · 충청 지방의 승무와 이대조에 의해 발전된 호남 지방의 승무가 있다. 한성준의 승무는 한영숙에게, 이대조의 승무는 이매방에게 전승되어 한영숙류와 이매방류로 나뉜다. 한영숙류는 이애주와 정재만 등이 계승했으며, 이매방류는 채상묵 등이 계승했다.

정해림의 승무는 이매방류로서 고난도의 기술과 기법을 통달하고 민족 문화적 정서를 담아내야 완성할 수 있는 춤이다. 힘과 신명이 충만한 춤사위와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 매서운 발디딤, 호화로운 장삼놀음, 세차고 현란한 북가락은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린다. 세속적 고뇌와 잡스러운 망념을 걷어내는 것 그리고 삶의 기나긴 여정을 풍요롭게 승화시키려는 정신세계가 함축되어 있다.

정해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매방 류) 전수자이다. 2019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1986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춤모임 '짓'에서 활동했다. 김은이, 김진홍, 이매방, 김명자 전통춤 공연에 다수 출연했으며 여섯 번의 개인 공연을 개최했다. 현재는 일지전통예술단 대표이며, 여성연희그룹 '풀빛' 단원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이매방 류)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매방 류) 전수자인 정해림.

# 제17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



김광현 作, 십일면 42수 관세음보살

**10월29일~11월5일 남양주 봉선사**
**이영길, 한봉석 등 회원 29명 참여**
**'관세음보살' 등 조각과 공예 작품**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이영길)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청풍루에서 제17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개최한다.

전통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이영길, 한봉석, 송근영, 조병헌, 이재순 등 29명의 회원이 참여해 '목조미륵반가사유상', '환희', '관세음보살', '모란 꽃살문' 등 불교 관련 조각과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전통조각의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재 보수와 재현에 힘써온 조각 장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이영길 회장은 "전통기법을 계승하여 현대에 반영시켜가는 작업은 길고 어려운 일이나,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절임에도 시간을 쪼개어 작품을 준비하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하며, 문화재에 관련된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은 민중들의 적극적인 불사 동참과 신심 있는 장인을 만나 찬란한 문화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불교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전통문화재 조각회는 그 중심에서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며 "화려한 단풍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가을 봉선사에서 아름다운 불교미술을 만나는 금번 전시가 성공적으로 회향되기를 바랍니다"고 축하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사찰마다 각기 다른 장엄함과 기능적 차이들을 보고 느끼며 연구하고 토론하여 개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미술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며 "무사히 작품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고 격려했다.

1986년에 창립된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는 35년이라는 세월동안 격년제로 작품전을 열면서 조각 · 공예 분야의 전통과 예술적 역량을 발전시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국가 · 지방 지정문화재를 많이 배출하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국내 정상급 전통조각 장인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재 조각의 전승 및 새로운 전통의 창달을 위하여 쉼 없이 정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놀랍게 달라지는 법당소리

2천여 사찰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2천여 사찰시설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공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현장설치가격포함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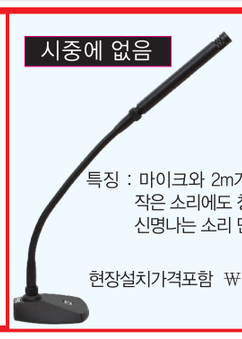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듦!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